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9월 5일(화) 총 4매		
담당 부서	도시디자인과	담 당 자	•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 ☎440-4791 • 담당자 안나름 ☎440-479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안전 공공디자인 특화정책 마련

- 시-남동구-길병원, 공공디자인 업무협약 체결 -

- 병원 주변 보행약자 보호위해 공공디자인 개발, '보행안심구역 지정' -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병원 주변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친화 디자인을 개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5일 가천대 길병원 뇌과학연구원에서 남동구청, 길병원과 함께 공공디자인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 원장과 기관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안심구역역(H-ZONE, hospital zone) 보행환경개선, 공공디자인 개발연구 및 지역사회공헌 등을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했다.

‘H-ZONE’은 보행약자를 교통사고와 보행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상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 반경 500m이내(보행약자가 도보로 1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일정 구간을 보행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적의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7차 사업」에 착수해, 올해 8월 말 전국 최초로 ‘H-ZONE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무엇보다 사업 초기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보행약자의 불편을 체험하고 해결방안을 공론화해 기관별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도시행정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의료시설주변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친화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길병원이 위치한 구월동 인근에 이 디자인은 시범 제작·설치했다.

인천시와 남동구, 길병원은 앞으로 ‘H-ZONE’ 조성을 위한 후속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는 지침(가이드라인)을 군·구, 관련 기관에 배포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이어 유 시장은 관계자들과 시범 설치가 완료된 구월동 남동대로 일원 현장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도시 공간 변화에 공감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의 도시행정은 도시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만큼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의료시설 주변 H-ZONE 시범사업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보행 약자는 물론 시민 모두를 위한 보행환경 초일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협약식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 ‘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디자인 컨셉 및 전략

5.1. 디자인 컨셉

All Ways safe walking

의료시설 주변, 디자인 복지로 누리는 안전안심

1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안심

천천히 걸어도 편안한
보행환경

2

모두를 위한
스마트인프라

편리한 생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도시환경

3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안내

신속하고 찾기편한
응급의료시설 안내

※ 전국 최초 H zone(Hospital zone) 마련

HOSPITAL ZONE (WHITE ZONE)

병상수 300개 이상의 대형병원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최대 1km 이내(보행약자가 도보로 1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일정구간을 HOSPITAL ZONE 으로 지정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를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



교통약자보호구역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

○ 디자인 및 시범설치 이미지

